

금융지주 생보사, 손실 최소화로 3분기 실적 방어 성공

신한라이프, 누적 순익 4671억
영업 경쟁력 강화 등 APE 성장
ALM 전략으로 자본건전성 확보

KB라이프, 누적 순익 2768억
보험영업손익 증가로 손실 만회
CSM 지속성장... 수익성 청신호



신한라이프 사옥

KB라이프생명 사옥

/각사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이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확실한 성장 보다는 상쇄와 만회를 통한 손실 최소화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안정적 기반의 이익창출을 시현했다.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빛을 봤다는 분석이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395억원) 증가했다. 금융이익은 1196억원으로 21.8% 감소했으나 보험이익이 18.4% 증가해 전체적인 순익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연납화보험료(APE)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릭스) 비율 상승으로 영업채널 경쟁력과 자본건전성 및 재무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

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63% (4696억원) 성장한 1조2155억원을 기록했다. K-ICS는 20.6%포인트(p) 상승한 230% (잠정치)로 집계됐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이후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CSM은 7조3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5억원 감소했다. 신한라이프의 CSM은 올해 1분기 7조277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영업채널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 전략을 통해 APE가 성장했다"며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전략으로 높은 자본 건전성과 재무 안전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KB라이프생명은 3분기 실적에서 성장이란 방어에 만족해야 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2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실적이 소폭 하락했으나 투자영업손익 감소를 보험영업손익이 만회해 손실을 최소화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투자영업손익은 1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267억원) 감소했으나 보험영업손익은 9.9% (214억원) 증가한 2365억원을 기록해 손실폭을 줄

였다.

K-ICS 비율은 286.4%로 전분기 대비 12.8%p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9.4%p 상승해 우수한 자본 건전성을 입증했다. 286.4%는 업계 상위권 수준으로 지난 상반기 기준 생보사 전체 K-ICS 비율(212.6%)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CSM은 올해 지속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CSM은 3조1653억원으로 지난 2분기 3조1446억원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영업 활성화에 따라 3분기까지 확보한 신계약 CSM은 3730억원으로 집계돼 미래 수익성에 청신호를 켜다.

KB라이프생명은 관계자는 "영업력 회복을 바탕으로 신계약 CSM이 증가해 CSM 잔액이 상승했다"며 "K-ICS 비율도 200%대 후반으로 충분한 자본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금융, 무형자산 '인적 자본' 체계적 관리

국내 금융권 최초 ISO 30414 인증
기업가치 제고로 밸류업 비전 선행

KB금융그룹은 무형자산인 인적자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30414'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발표한 인적자본 보고지침 가이드라인이다. 비용과 다양성, 리더십, 조직문화, 생산성 등 11개 영역 58개 지표를 구성되어 있다.

도이체뱅크, 알리안츠 등 글로벌 선도 금융기업들 역시 인적 자본 관리를

위해 각각 2021년, 2022년에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2020년 기업에 대한 공시 규제(Regulation S-K)를 개정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해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1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상장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개정해 인적자본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본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KB금융은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 30414' 인

증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재무적 가치에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 인적자본 관리를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양종희 회장의 경영철학과 일치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ISO 30414' 인증 취득을 계기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KB만의 차별화된 밸류업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김보현

현 백정완 사장, 내달 공식사임
조직 안정화·책임경영 토대 마련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로 인수과정을 총괄했던 김보현 총괄부사장(사진)이 낙점됐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이사회를 통해 김 총괄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대표이사 예정자는 1966년생이다. 대한민국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지난 2022년 중흥그룹 편입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했다. 2023년, 2024년에는 총괄부사장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외 현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대우건설은 김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 "오랜 기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조직 구성원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현 백정완 사장은 다음달 대표이사직



에서는 공식 사임하지만 사장직은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백 사장의 대표이사 사임 배경에 대해 "내년에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빠른 조직 안정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백 사장의 사임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이달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신임 대표이사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내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정비를 한발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백 사장은 회사가 그룹 체제로 편입되는 지배구조 변화 속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고금리와 원가상승 같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성장시켰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대표이사직 사임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LH 공간정보 플랫폼 '내집어디'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고 5일 밝혔다. '내집어디'란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정보, 수익계약 중인 토지 판매 현황, 상가 분양 정보에다 통계기능까지 제공하여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플랫폼 기능 확장을 위해 총 4개 지방공사(경주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 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지난 4일 임성기 중앙이엠씨 대표(왼쪽)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가운데)에게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협은행

이석용 행장, 지역강소기업 현장소통 강화

NH농협은행, 中企 애로사항 청취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기업인 중앙이엠씨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이엠씨는 1993년 설립되어 제철 및 산업플랜트 기자재와 특수기계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2023년에는 11개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4년 PO SCO 우수공급사(17년 연속), 현대제철 우수공급사로 인증을 받았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중앙이엠씨가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플랜트 기자재 및 금속 구조물 제조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지역 소재 우수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원전 설계 수주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2기 추가 건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대형원전을 수주하며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계약서 명식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불가리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같은 날 오후 현대건설은 소피아 오브차쿠펠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영준 사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리아 종합건설기업 GBS와 현장 가설 인프라 설계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전지원 기자